

#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 가동

## 무주군, 노인 일자리 사업 통합돌봄 서포터즈 참여자 발대식 가졌다

무주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돌봄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날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통합돌봄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규영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돌봄 서포터즈'는 올해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다.

총 70명의 참여 어르신들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보건·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통합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고령자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체 중심의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은 4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통합돌봄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발대식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안전 수칙 준수와 성실한 활동 참여를 다짐했다. 이규영 회장은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며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113억여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삶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통합돌봄 서포터즈가 어르신 사회 참여 확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손홍기 기자

# '안전 최우선' 산림사업 추진 다짐

## 장수군,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발대식·산업안전보건교육 개최

장수군은 지난 3일 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지원단 등 산림사업 근로자 100명이 참석해 숲가꾸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품질 향상, 무사고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군민의 산림자원을 보호



하는 최일선 현장 인력이라는 사명감을 공유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다짐했다. 이어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산림사업장 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수군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은 산림조사단, 숲가꾸기파트를, 도로변 환경정비사업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도관리원, 산사태관리원, 병해충예찰방제단 등 7개 분야 총 100명으로 구성돼 연중 운영된다.

각 분야 인력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은 물론 도시 가로수 관리와 생활권 주변 산림 민원 처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산림사업장 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수군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은 산림조사단, 숲가꾸기파트를, 도로변 환경정비사업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도관리원, 산사태관리원, 병해충예찰방제단 등 7개 분야 총 100명으로 구성돼 연중 운영된다. 각 분야 인력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은 물론 도시 가로수 관리와 생활권 주변 산림 민원 처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귀농귀촌 멘토컨설팅단 위촉·사업설명회 열려

진안군은 4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멘토컨설팅단 위촉식을 추진하고, 밀착형 상담과 맞춤형 지원에 본격 나섰다.

멘토컨설팅단은 귀농 준비단계부터 정착 이후까지 영농기술, 농지 및 주거 정보, 지역 적응 등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멘토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나누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멘토 6명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및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위촉식과 더불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2026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날 큰글씨 버전 민원업무 책자 제작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독성을 한층 강화한 '어르신용 큰 글씨 안내서'를 추가로 마련했다. 지시력자와 어르신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민원 업무를 선별해 내용을 간결하게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민원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담당 부서 등을 한눈에 확



장수물 홈페이지.

# '장수물' 마케팅 설명회 개최

## 장수군 농특산물 소핑몰·매출 성과·운영 방향 등 공유

장수군은 한누리전장에서 장수군 지역 농특산물 소핑몰 '장수물' 지역농가 및 임업업체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장수물 온라인 B2C 마케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품 디자인, 고객인식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판매 소핑몰 운영과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년도 매출 성과 및 홍보 전략, 2026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군은 올해 전 군민 늘어선 기본소득 시대가 열리면서 '장수물'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지역상품권 chak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교육에서 고객관리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재구매를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물'은 군에서 직영하는 농특산물 직영 온라인 소핑몰로 임업 농가의 품질 향상 노력과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 전략으로 2025년 매출액 1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0%의 매출액을 증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장수군은 지난해 '장수물'과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장수가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송인 '장수 좋다'를 제작했고 장수군의 아들이자 군 홍보대사인 최재명 가수가 직접 녹음과 영상 촬영에 참여해 군정 홍보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물이 임업 농가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본소득 연계 결제 시스템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장수물'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 관로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온라인 판로 확대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장수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보 전략으로 2025년 매출액 1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0%의 매출액을 증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장수군은 지난해 '장수물'과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장수가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송인 '장수 좋다'를 제작했고 장수군의 아들이자 군 홍보대사인 최재명 가수가 직접 녹음과 영상 촬영에 참여해 군정 홍보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물이 임업 농가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본소득 연계 결제 시스템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장수물'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 관로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온라인 판로 확대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장수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어르신 위한 큰 글씨 민원업무 안내 책자 배포

진안군은 민원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주 찾기 민원업무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버전을 별도로 제작해 군청 민원실과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

이번 큰글씨 버전 민원업무 책자 제작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독성을 한층 강화한 '어르신용 큰 글씨 안내서'를 추가로 마련했다.

지시력자와 어르신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민원 업무를 선별해 내용을 간결하게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민원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담당 부서 등을 한눈에 확



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군은 2026년 민원편람 전체 자료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오프라인 큰 글씨 책자를 별도로 비치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극' 참여자 모집

무주군이 지역 청년의 자선 형성과 생활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극' 참여자 15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극'은 2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지자체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24개월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 240만 원에 지원금 240만 원이 더해져 총 4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8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으로, 5개월 이상 군로를 지속 중인 자(사업자 포함)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손홍기 기자

## 진안군, 전북청 청년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지역 산업에 종사하거나 구직 중인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 청년(활력·지역정착)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공고일(2026. 3. 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안군으로 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활력수당'은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포인트 25만원과 지역상품권 25만원으로 구성된다.

'지역정착수당'은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문화예술·연구소기업 등 도내 지역 산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종사 중이며,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원(체크카드 포인트 9만원, 지역상품권 21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활력수당은 전북청년 활력수당 누리집, 지역정착수당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